

## “선포하고 증언하라.” (사도 10,42)

“나는 정녕 죽지 않고 살리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시편 118,17)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생명의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루카 24,46)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사순절을 회개와 보속의 실천으로 채워가며 부활을 준비해 온 형제자매 여러분께 마음을 다해 축복의 인사를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며 가장 큰 신비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께서 강생과 공생활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이 헛될 것이며, 창조 때부터 이어 온 구원의 희망도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이미 여러 차례 약속하신대로 당신 외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로마 6,8)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큰 소리로 알렐루야를 노래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부활은 극진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요한 3,16) 인간이 되게 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고, 많은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치유와 일치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며칠 뒤에 있을 총선거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환하게 밝히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새 복음화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 언제까지나 그 영광을 살고 전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 부활의 은총이 우리 교구의 모든 분과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강복합니다.

2012. 4. 8 예수 부활 대축일에

+ 기 훈 회

천주교 춘천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